

서구, ‘맨발 산책로’ 체계적 관리 만족도 높여

유지관리 위해 조례·매뉴얼 마련
올해 말까지 31개소 맨발로 조성
50명 배치해 이용 불편사항 점검
이물질 제거·세족장 청소 등 진행

맨발 걷기 열풍을 일으키며 ‘맨발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광주 서구가 맨발 산책로 조성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서구는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지난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며, 올해 1월 맨발 산책로 조성·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다른 자치구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서구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금당산, 상무시민공원 등 18개 전체 등에 28개의 맨발 산책로 조성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3개소를 추가해 총 3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구는 맨발 산책로 조성 뿐만 아니라 관리·유지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맨발 산책로 26곳에 인력 50명을 배치하고 이용 불편사항을 매일 점검하고 있으며 전담 유지관

리자들을 별도 선발해 맨발길 주변 이물질 제거, 면고르기, 다지기 및 배수시설 정비, 세족장 청소, 주변 예초작업을 일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용률이 높은 맨발 산책로 6곳에는 토사함을 비치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유실된 흙을 보충하면서 맨발길 환경 정비에 참여하는 착한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서구는 내년부터 거점 맨발로를 지정해 조명시설·복합형 세족장 등 특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구는 지난 5월 호남권 최초로 ‘도심 속 맨발축제’를 개최했으며 맨발걷기 동호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걷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맨발로 걷고 싶으면 서구 가자’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맨발 산책길이 서구민 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적은 예산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은 착한 정책들을 펼치며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산마을공동체 한마당’ 성료 광산구, 400여명 참여

광주 광산구가 지난 26일 수완지구 원당산공원 잔디마당에서 올 한 해 마을공동체 활동과 발자취를 돌아보고, 성과를 공유하는 ‘2024년 광산마을공동체한마당’을 개최했다.

‘마을, 꽃 피는 가을 나들이’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의 ‘2024년 광산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 시민 등 40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31개 마을공동체가 복지, 교육·돌봄, 문화예술, 생태환경 등 올해 활동 과정과 내용을 녹여낸 길거리 공연, 체험, 전시 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주민이 마을 활동의 성과물을 보고, 체험하며 자유롭고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소풍 공간(피크닉존)’을 운영했다.

마을공동체 가로세로 낱말 퀴즈, 현장 인증사진 찍기 이벤트, 대형 꽃 사진 촬영 구역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진행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활동과 노력은 지속가능한 광산을 실현할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주민이 이웃과 힘을 모아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고, 직접 새로운 변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장수천 어울림 장터’ 열려 광산구, 물품나눔 등 행사 다채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영복지시설인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4일 마을공동체 놀이문화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수천 어울림 장터’를 진행했다.

장터는 △정보나눔 △재능나눔 △음식나눔 △물품나눔 등 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산구가족센터,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산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참여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를 홍보했다.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은 광산구에너지센터와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체험관을 운영했다.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성과물 전시, 공연, 시사회도 펼쳐졌다.

이현숙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장수천 어울림 장터가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 주민이 어울리며 즐기고, 나누는 공동체 나눔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러한 교류와 소통이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돌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도록 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건강 한발짝 금연 캠페인’ 동구, 통장단·주민 홍보 가두 행진

광주 동구 학동 통장단이 최근 건강동아리 활동의 일환으로 ‘건강 한발짝 금연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광주 동구 학동 천변우로 산책길이 지난 7월17일 금연거리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자 통장단과 주민 20여 명이 참여해 가두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폐지를 활용해 직접 만든 재활용 피켓을 들고 쓰레기 감량 홍보 활동도 펼쳤다.

류경현 회장은 “신규 지정된 금연거리가 주민들의 산책과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는 만큼 금연 문화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학동 통장단에서 건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금연 캠페인을 시작으로 천변 좁길과 걷기, 포토 보이스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학동 동장은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통장단에 감사드린다”면서 “깨끗하고 건강한 산책길 조성을 위해 동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공영복지시설인 행복드림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4일 마을공동체 놀이문화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수천 어울림 장터’를 진행했다.

광주 광산구 제공

북구, 주민 복합공간 ‘임동 커뮤니티센터’ 개관

3층 규모 체력단련실·다목적실 등

광주 북구가 주민 복합 여가 생활공간인 ‘임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마쳐 오는 30일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임동 커뮤니티센터는 임동 470번지에 위치한 주민 편의시설로 무등경기장 인근 생활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의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북구는 지난 2022년 9월 부지를 확보했고, 이후 약 2년간 공사를 시행해 올해 5월 준공을 마쳤다.

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299.61㎡ 규모로 조성됐고 층별 주요시설로는 △1층 체력단련실 △2층 프로그램실, 회의실 △3층 다목적실 등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이 갖춰져 있다.

북구는 임동 주민단체와 시설 관리 및



광주 북구가 주민 복합 여가 생활공간인 ‘임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을 마치고 오는 30일 개관한다. 사진은 내부 체력단련실 모습.

광주 북구 제공

활용방안에 대해 협력해 해당 시설을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시설이 주민 간 소통과 여가문화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구성

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은 3층 다목적실에서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시·구 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 기념 촬영, 시설 순회 순으로 오전 10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된다.

윤준명 기자

남구, 암 의심 환자 2차 검진비 지원

내시경·초음파 비용 등 최대 6만원

광주 남구는 국가 암 검진에서 의심 판정을 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2차 검진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암 유소견자 2차 검진비 지원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되며, 지원 대상은 올해 국가에서 실시한 암 검진에서 대장암과 유방암 의심 판정을 받은 관내 주민이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암 검진을 통해 해당 판정을 받은 주민도 소급해 지원한다.

50세 이상 대장암 유소견자에게는 대장내시경과 수면 검사 등을 위해 최대 6만원까지 제공하며, 유방암 의심판정을 받은 40세 이상 여성은 초음파 비용으로 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차 검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국가 암 검진 결과서 원본과 진료비 영수

증, 통장, 신분증을 챙겨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차 검진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062-607-6121)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암 조기 발견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지원 대상자분들께서는 연말까지 잊지 말고 신청서를 제출해 검진비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장관상 남구, 위험물 탐지·전송 등 호평

광주 남구는 현재 운영 중인 AI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시스템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대표사업 1개를 사전 심사한 뒤 상위 10개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남구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차량에 장착한 AI 도로 분석 장치를 통해 도로 위의 위험물을 탐지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소개해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특히 도로 위 위험 요소에 대한 선제 대응과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한 점이 이목을 끌었다.

또 위험물을 발견한 뒤 즉시 처리해 차량 정체를 해소한 부분과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 감소, 민원 감소, 도로 유지보수 업무 처리 용이 등의 성과를 거둬 공공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해 도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특히 AI 기반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시스템은 안전 분야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